

“인생은 비누거품 같은 것”

유미리의 《플 하우스》를 읽고

김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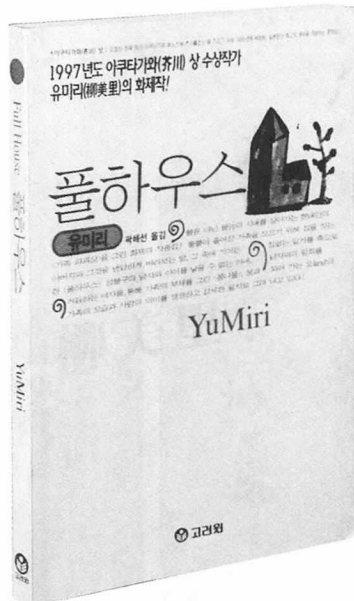
소설가

《플 하우스》를 읽는 동안 내내 한 가지 이미지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쨍쨍한 여름날,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대야를 안뜰에 내다 놓고 그 안에 앉아 하염없이 비누 장난을 하는 아이의 이미지. 아이는 물기 묻은 손으로 비누를 잡으려 하지만 비누는 매끄럽게 손바닥 사이로 빠져 달아난다. 잡으려 하면 다시 미끄러져나가고, 다시 잡으려 하면 또 빠져 달아난다. 그래도 아이는 결코 장난을 멈추지 않는다. 그것밖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는 커서 아마 《플 하우스》의 주인공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어린 시절, 이미 상실감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것도 손에 쥐려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믿지 않고 어떠한 사건 앞에서도 한낱 허상처럼 가만히 서 있기만 한다. 모토미는 그런 인물이다.

《플 하우스》는 와해되어 가는 가정, 그것을 재건하려는 아버지의 외로운 노력이 축을 이룬다. 아버지는 혼자 힘으로 거대한 집을 짓고 때문에 문패를 단다. 하야시 쇼지, 기요코, 모토미, 요코. 오래 전에 떠난 아내의 이름은 물론, 일년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두 딸의 이름까지 문패에 새긴다. 그리고는 두 딸을 새 집으로 초대한다. 약간의 속임수를 동원하여, 반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딸들이 결코 새 집을 방문하지 않으리라는 걸 아버지는 알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두 딸이 아버지가 지은 새 집에 들어서는 것으로 시작된다. 새 집에는 모든



지난 1월 일본의 권위있는 문학상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한 재일동포 작가 유미리씨. 성장기에 겪은 방황과 가족의 와해, 자살미수는 그의 문학세계의 강력한 모티브이기도 하다. 17세 때 희곡을 쓰기 시작, 화제를 모았고, 첫 소설집인 《플 하우스》로 각종 문학상을 휩쓸어 일본 문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로 부상했다.



것이 준비되어 있다. 부엌살림과 욕실용품은 물론 딸들의 잠옷과 수영복까지. 그러나 딸들은 그 집을 떠날 궁리만 한다. 포르노 배우인 동생은 하룻밤을 묵고 떠나고, 주인공은 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조금 더 차린 후 그 다음날 떠난다. 그 과정에서, 뚜렷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인공이 보는 사물은 희미하고, 아버지의 노력은 헛것이 되고, 아버지를 소외시키는 두 딸의 심정에도 뚜렷한 증오나 그럴 만한 사건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아주 짧은 몇 개의 이미지만 나열될 뿐이다.

며칠 후, 다시 아버지의 집을 방문한 주인공은 그 집에 낯선 가족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본다. 집을 날리고 지하철역에서 잠자는 일가를 아버지가 데려온 것이다. 아버지의 엉뚱한 선택, 빈 집에 낯선 가족이라도 데려다 놓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행동에서도

주인공은 아버지의 소외감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 그것 역시, 자신을 그 집에 묶어 놓으려는 하나의 술책일 뿐이라고 믿는다. 오히려 주인공의 마음은 새 가족의 일원인 작은 여자아이에게 쏠린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비슷한 계집아이. 주인공의 마음 속에 있는 아직 덜 자란 아이가 그 계집아이를 바라보게 한다.

어쩌면 새 집에 들어와 사는 가족은 주인공의 어린 시절의 가정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오버랩시켜 읽으면 이 가족이 서로에게 느끼는 소외감이나 냉담함의 이유가 설명된다. 무기력하며 엉뚱한 것만 좇는 아버지,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만 좋아하는 어머니, 그 사이에서 장난 전화로 소방관들을 부르거나 커튼에 불을 지르는 아이들, 다시 그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아버지. 바로 거기에 의문의 실마리가 있다. 집안을 온통 장악한 낯선 가

족에게 호의적인 주인공과, 그들에게 어떠한 힘도 행사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들의 횡포에 끌려들어가는 아버지의 태도까지.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흐릿한 영상으로만 전달된다.

작가 유미리가 쓰려고 했던 게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다. 손바닥 사이에서 미끄러져 달아나는 일상들, 사람들, 풍경들. 그리하여 남은 것이리곤 손바닥에 묻어 있는 희미한 비누의 흔적, 그것이라도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보고 손바닥을 이리저리 문지르면 금세 부글부글 피어나는 비누거품 같은 것.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고 혹은 삶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비누거품일 뿐이라고 작가는 말하려 하는지도 모른다. 작가의 의도가 그것이였다면 인물도, 스타일도, 주제도, 독자에게 훌륭하게 전달될 셈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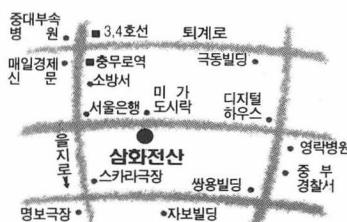
고려원/A5신/228면/7000원

IBM분판·윈도우용 아래아한글 전문출력

..... 호글프로 96, 호글3.0B, 도스버전

24시간출력

- 4도분판 코렐, 포토샵, pagemaker
- 단 도 호글96 · 3.0B · 도스, 워드
- 프린트 호글, 한글워드, 혼민정음
- PC로 입력한 data 편집출력
- 한자 및 고어 100% 지원
- 국내의 모든 서체보유



이런분을 기다립니다

- 윈도우용 호글의 출력이 않된다고 알고계시는 분
- 호글을 이용한 조판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
- 호글이 불편하게 생각 되거나 기능에 자신이 없는 분
- 호글을 이용해 조판을 시작하려는 분
- 출력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시는분

삼화전산 천리안 sawh
 하이텔
 전화 263-2651~3 모뎀 277-8097.8